

### 포스텍, 신풍제약에 C형 간염 치료기술 이전

2014년 11월 18일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산학협력단과 신풍제약이 '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 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이전된 연구는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이 지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해왔다. 기술이전 조건은 단계별 정액기술료 5억원에 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체결됐다.

최근까지 C형 간염 치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위스 로슈(Hoffman-La Roche)사의 페가시스(PEGASYS®), 미국 머크(Merck)사의 페그인트론(PEG-Intron®)과 같은 인터페론 알파에 합성고분자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접합한 '페길화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을 리바비린(Ribavirin®)과 병용해왔다.

하지만 페길화 인터페론은 체내 투여 시 혈관을 따라 간 이외에 다양한 신체장기로 전달되어서 간에서의 치료효능이 낮고 반복 투여 시 탈모와 빈혈, 폐부종 등 다른 신체장기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세광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성 물질인 인터페론 알파에 기존 합성고분자 대신 생체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을 접합시킨 것으로, 페길화 인터페론에 비해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신체장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물실험 결과 현재 사용되는 C형 간염치료제인 페길화 인터페론보다 효능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세광 교수는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C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C형 간염치료 외

에도 간경화, 간암 등 간 질환에 특화된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 기사 맨위로**

**참담기**